

주민 고통 외면한 광주시 행정심판위

무단투기로 허가 취소 폐기물업체 심리 보류 결정 수년째 분진 피해 탄원서 제출 주민들 “답답하다”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가 불법 행위로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폐기물업체에 대한 행정심판을 석연찮은 이유를 내세워 미루는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시선이 쏠리고 있다.

해당업체의 경우 이미 폐기물 1만여t을 무단 투기한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데다, 최근 5년간 10차례나 대기 오염 물질을 초과 배출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일대 주민들은 분진 피해·환경 악영향 등을 우려하며 조속한 처분을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외면해 시선이 끊이지 않는다.

26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취소처분 등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한 심리 ‘보류’를 결정했다.

명령사항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10개월간 380차례에 걸쳐 허수를 정화하고 남은 찌꺼기 등 9400t을 무단과 합평균 등지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서구는 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련법인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취소하고 폐기물반입금지 처분을 내렸고 명명환경은 이에 불복, 행정심판과 소송을 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뤄 진지 5개월여 만에 첫 심리를 열고 ▲폐기물처리업체의 허가를 취소할 경우 해당 업체에 폐기물처리를 맡기는 기업이나 공공기관(하수처리 등)의 2차 피해 ▲영업정지가 아닌 허가 취소 처분의 적절성 등을 좀더 따져보아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을 미뤘다. 해당 심리에는 광주시 행정심판위원 9명 가운데 공무원 1명, 법률전문가(변호사, 교수) 등 7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명명환경 인근 주민 120여명이 해당 업체로 인한 환경 피해 등을 우려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이미 여러 차례의 환경 위반 행위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위원회의 심리 ‘보류’ 결정이 안이했

다는 지적도 많다. 동종업체가 전국에 상당수 있는데도 폐기물 처리에 혼란을 가져온다는 심판위원회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서구와 주민들 설명이다.

인근 주민들은 “상습적으로 대기 오염 물질을 초과배출하고 분진을 날려보내는 업체의 권리는 지켜주고, 10년 가까이 고통받는 주민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구측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저지른 하수찌꺼기 무단 투기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취소 처분 외에 다른 처분 규정이 없다. 선처나 재량행위 여지가 없다”면서 “지난 3년간 관련법 위반 사실을 다루느라 대법원까지 갔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졸업 축하 행가래 26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졸업복을 입은 한 졸업생이 졸업 축하 행가래를 받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조영표 광주시의장 피의자 신분 소환키로 ‘위터파크 몰카’ 20대 여성 곡성서 체포

채용 사기 연루 여부 조사

조영표(54) 광주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립고 교직원 채용 사기 사건과 관련, 조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취업 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사립고 3곳에 음시원서를 내도록 권유하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조 의장의 고교 동창인 브로커 A(54·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상태)씨 자택과 양과동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A씨 채용 사기 사건과 관련, 조 의장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다. 조 의장은 A씨가 1억원을 받아 가로챈 과정에서 ‘A씨가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차용증을 써준 사실이 확인된 상황이다. 경찰은 A씨와의 친분 관계, 차용증 등을 근거로 조 의장이 사기 사건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보고 조 의장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율기자 dok2000@

경기용인동부경찰은 26일 위터파크와 야외수영장에서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여·28)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여름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위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9분41초짜리 이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비친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위터파크·야외수영장 4곳 중

3곳에서 찍은 동영상에서 최씨의 모습을 발견했다.

고향인 곡성으로 도주했던 최 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가 달미를 잡았다. 폭행 사실을 확인하던 경찰이 최씨 아버지로부터 “내 딸이 위터파크 몰카 촬영자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그때부터 최씨를 검거하기 위해 잠복해있던 수사팀에게 최씨를 인계했다.

최씨는 경찰에서 “내가 찍은 것이 맞다.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10년간 노모 상습폭행 ‘패륜 아들’

어머니 “선처” 호소...해남경찰, 보복범죄 우려 구속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친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김·경은 아들의 재범 위험성 등을 들어 법원에 면회 금지를 신청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다고 면회를 신청하는 등 모정을 보여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김모(41)씨는 지난 10일 오후 1시30분께 해남군 화산면 자신의 집 안방에서 점심을 먹던 중 어머니 A(71)씨에게 “안경을 갖다 달라”고 했다가 “밥 먹고 가져다 주겠다”는 말에 순간 격분해 폭력을 휘둘렀다.

135cm의 키에 40kg도 못되는 힘없는 어머니를 향해 플라스틱 양동이를 집어 던져 피가 흐르는데도, 사기 그릇 등을 잇따라 집어던지며 방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185cm의 큰 키와 90kg이 넘는 덩치의 아들의 폭력에 어머니는 잔뜩 겁에 질려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도망쳐 5km가 떨어진 파출소까지 걸어가 도움을 청했다.

어머니 A씨는 지난해 4월에도 아들에게 엉덩이를 걷어 차여 골반 뼈가 부러져 한 달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10년간 아들의 상습적 폭행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아들에게 폭행을 당한 날에는 인근 야산에서 몰래 숨어 지냈지만 더 이상 아들의 폭력을 방치할 수 없어 10년 만에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들을 방치했다는 더 큰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 아들 김씨에 대해 존속폭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는 한편, 법원에 아들에 대한 면회 금지 신청을 냈다. 어머니 A씨가 아들의 면회 이후 재판부 등에 선처를 호소해 풀려날 경우 자칫 어머니에 대한 더 심한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어머니 A씨는 “그래도 내 아들”이라며 눈물을 흘리며 감싸는 모정을 보였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기상천외의 보이스포싱 조직 ‘현금 꽃다발’ 주문 돈세탁

전남경찰, 4명 구속·11명 입건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꽃집에 ‘현금 꽃다발’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돈세탁을 한 보이스포싱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6일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대출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조직폭력배 강모(33)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충남 천안, 여수·광양, 광주 등에 콜센터 형식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32명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7억7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대

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 등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있으면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으며 빼돌린 돈을 인출한다. 은행 CCTV에 적발될 것을 우려, 현금인출기 대신 꽃배달업체를 통해 ‘화페 꽃’을 주문해 현금화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이 꽃집에 5만원짜리 지폐를 두른 장미 꽃 100송이를 주문한 뒤 대금은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3000만 원 상당을 빼들었다고 설명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15년 복역 40대 출소 한달만에 행패 또 철창행



○...살인죄로 15년간 복역했던 4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또다시 철창행.

○...26일 진도경찰에 따르면 박모(45)씨는 지난 15일 오후 1시40분께 진도군 진도를 A씨의 식당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과 접시 등 집기류를 집어던지

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리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

○...박씨는 이날 소주 한 병을 7개의 잔에 나눠 따라놓고 연달아 술잔을 비우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A씨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는데, 박씨는 “소주 한 병에 딱 7잔이 나오더라. 뭐가 이상한 행동이야”며 분통.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수완지구 상가 매매
(4층중3층 / 즉시입주가능)

85평

모아 A.P.T 앞 (6천세대)
상권 밀집지역
월수익 180만
매가 3억 8천만

보 3천 용 2억5천만

상가매매

① 상무지구 정연오피 상가 (상무지구 한국은행앞)
→ 매가 1억3천만 (보 1천, 용 4천5백만)

② 광산구 월계동 1층 40평(1층 가격 최고 저렴)
→ 매가 1억 5천만(보 800만, 용 8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2층상가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나주 혁신도시 10분!
나주역 2분!
영강고교
영강초교 정문앞

1층6칸 올임대, 2층 주택가능

월수익 200만 매매가 2억9천만

①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상업지건물 7층사우나건물 월수익 950만 매매가 4억5천	⑤ 상무지구 정연오피 3층(30평) 월수익 70만 매매가 1억2천500만
②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23평) 월수익 45만 매매가 9천만	⑥ 동구 수기동제일오피(45평) 월수익 60만 매매가 1억1천만
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 월수익 33만 매매가 5천만	⑦ 광양 상야이파트15평 (상가밀집지역) 매매가 4천만
④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월수익 32만 매매가 3천800만	⑧ 상무지구 중흥A.P.T.(33평) 매매가 2억7천만

010-6834-4800
010-6832-9700

상가건물매매 (북구 우산동 구호전 사거리)

월수익 950만(1년 1억2천만)
사우나 직접 운영시 **직접 운영시 1800만**

7층 건물

- ✓ 1층 커피숍 입점완료
- ✓ 2~5층 사우나, 주택
- ✓ 6~7층 설계사, 건설사

건물 올 리모델링!

매매가 14억 5천 (보 2억, 용 6억)

010-7384-7800 / 010-6670-9800